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 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강 인 석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김 미 리 에블린 (유·초등부)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최 향 베로니카 수녀 김 아 소화데레사 수녀 황 태 프란치스코 김 영 바오로 010-3719-0036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 지역별 성모의 밤

일자	5월6일(목)	5월13일(목)	5월20일(목)	5월24일(월)
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 저녁 7시부터 묵주기도 후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 미사 봉헌합니다.

◎ 알 림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오라토리요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주(5월 02일) 성소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사순실천표를 내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5월 1일(토) 근로자의 날로 사무실 쉽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4/25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05/02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성물방 판매 시간 및 신간 안내

- 판매시간 : 주일 10:00~13:00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04/14~04/20)

구 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22구역 3반	김강유	메토디오	군중/군인

* 빈첸시오회 후원금 모집 *

코로나19로 정기적인 판매를 통한 후원금 모집이 안되어, 본당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05/02)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4월14일 ~ 04월20일)

- 교 무 금 4,675,000원
- 주일헌금 3,722,000원
- 감사헌금 김해경 5만원 구제후10만원 이길자 5만원
도현만10만원 강영숙10만원 이서희10만원
성대석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4/25	권태희	심재순	최상림	장익근	백희자
05/02	구민서	조흥환	김영균	최승일	손정주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4/25	오광운	장인홍	이운영	박형순	최창열	최석준
05/02	이성일	최상남	장인홍	최석준	김광수	최승일

세상의 버림

18.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위하여 인류의 일부는 희생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존경하고 보호할 우선 가치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식료품부터 시작하여 온갖 낭비의 형태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지탄받아 마땅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19. 노인을 고독의 슬픔에 방치하는 것과 함께 인구 고령화를 불러오는 출산율 저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끝나고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확인시켜 줍니다. “폐기의 대상은 음식이나 남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도 흔히 폐기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노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폭염과 다른 상황 때문에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노인들은 잔인하게 버려졌습니다. 가족의 적절하고 세심한 동반 없이 노인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을 다른 이들에게 떠맡겨 버리는 것이 가족 자체를 해체시키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아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기 뿌리와 접촉할 기회와 또 젊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접촉할 기회를 젊은이들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0. 이러한 버림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불러올 심각한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노동 비용 절감에 집착하는 경우에서 드러납니다. 그로써 조장되는 실업은 결국 곧바로 빈곤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버림은 숨어있다가도 다시 나타나고는 하는 인종 차별처럼 우리가 극복되었다고 생각하던 비열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인종 차별의 여러 사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사회 진보는 우리 생각과 달리 현실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21. 일부 경제 법칙은 성장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였음이 증명되었으나 그렇다고 온전한 인간 발전에 기여하였음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부는 증대되지만 평등은 없었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빈곤을 감소시켰다고 하는 주장은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대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빈곤의 표지로도, 큰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역사상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실제적 기회라는 맥락에서 언제나 빈곤은 분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